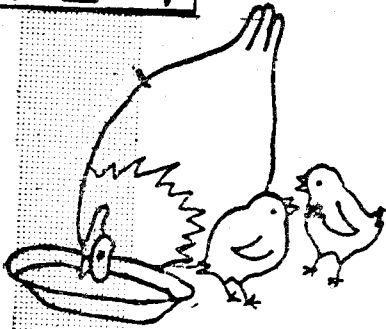


이달의



사양관리

1. 기온

무더운 여름철이 지나 9월로 접어들게 되면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에 의해 서울지방의 평균기온은 20~21°C로 내려가고 야간에는 10°C 이하로 내려가 주야간의 심한 온도차를 나타내는 달이 9월이다. 주

간동안은 닭에 있어서 가장 최적온도가 유지되므로 온도유지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야간에는 적정온도 이하로 하락하게 됨에 기온의 급변으로부터 발생하기 쉬운 여러가지 호흡기 질환의 감염이 우려되므로 야간에는 방한시설의 초기단계로서 최소한의 환기창만 개방한채 야간온도유지를 위해 최대한 신경을 써야 한다.

2. 점 등

9월의 평균 일조시간은 서울지방이 12시간 27분으로 8월에 비하여 1시간 10분 정도 단축되었기 때문에 육성중인 닭에 있어서는 점감법의 점등원리(Step down lighting)가 그대로 적용되어 점등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나 초산전인 닭과 산란중인 성계에 있어서는 일조시간의 감소로 인하여 점증법의 점등원리(Step up-lighting)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품종에 따른 표준 점등 시간

계획에 의거 새벽이나 저녁에 인공점등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통상 초산전 계에 있어서는 14시간의 점등을 실시하고 산란중인 성계에 있어서는 14시간 이상의 점등시간을 유지해야 한다.(닭품종이나 일령에 따라 점등의 차이가 있음)

특히 노계(老鷄)에 있어서는 자연 일조 시간에 의거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환우, 휴산, 취소계가 발생하게 되므로 조명시간이 최소한 16시간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인공점등을 실시치 않으면 안된다.(육계종계 있어서는 18시간정도)

3. 환경 개선

9월의 상대습도는 서울지방이 평균 70~75%를 유지하고 야간온도의 저하로 인하여 야간동안은 계사내 환기를 충분히 유지 시킬수가 없기 때문에 주간동안을 이용하여 계사내 환기를 충분히 시켜 계사내를 최대한 건조하도록 해야 한다. 무더운 여름동안 피로해진 닭은 조그만한 외부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환우 휴산을 시작하게 되므로 환절기의 닭 관리는 무더운 여름철 닭관리 못지않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육 추

9월은 내년봄을 위한 가을 병아리를 입추시키는 가을 육추의 최적시기라고 볼 수 있다. 산란중계 육용중계등 중계,육추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늦은 감

9월

김 상 곤
(인산농원 제1농장장)

이 있으나 산란계 육추는 내년도 계란가 격이 양호한 3월에 생산물을 출하하기 위하여 9월에 육추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육추조건도 주간 온도 높기 때문에 타 계절 보다 유리하다고 생각되나 단지 야간의 온도 저하로 인하여 육추온도를 표준온도까지 상승시키지 못하여 육추 육성율이 하락하는가 하면 또한 온도에만 신경을 다쓰보니 계사내환기에 소홀해져 호흡기 질환 마택병에 닭에 감염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온도가 높은 주간에는 난로를 충분히 피워 최소한의 환기구만 개방한채 최적 표준온도를 유지시킴이 중요하다.

통상 가을 육추는 육추시기에 환기가 충분치 못하여 봄, 여름 육추보다도 마택병, 백혈병의 감염이 많아 육추 육성율이 불량한 경향이 많으므로 9월초 일찍 육추를 시작하여 주간 동안만이라도 충분한 통풍이 유지되도록 계사내 환경을 개선 시켜야 한다. 그러나 부로일러 육추에 있어서는 11월 출하시에 높은 가격만 보장된다면 육추조건으로는 최적조건이기 때문에 가을 육추가 육성을 증체울 면에서 대단히 유리하다.

5. 강제환후

강제환후는 2년계의 산란노

계와 400일령 이상의 육계종계와 산란종계에 대하여 실시하는데 산란계의 강제환우의 효과는 경영면에서 큰 의의가 없으나 요근래에 와서는 마택병으로 인한 육추 육성율의 불량으로 인하여 갱신계를 육성시키는것 보다는 산란하던 노계를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강제환우 휴산시켰다가 다음해 초봄에 산란시키는 것이 경영상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강제환우를 실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갱신계 육성율이 90% 이상만 유지 될수 있다면 굳이 강제환후를 시켜가면서 산란을 지속시키는 것이 경영상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종계(육용종계 및 산란종계)와 세미 부로일러 생산을 위한 겸용종 모계에 있어서는 겨울동안의 초생추 판매가 불량한 시기에 강제환우를 시켜 생산량을 줄이고 내년도 초의 초생추 수요급증시 많은 초생추를 공급시키기 위하여 400일령 이상의 닭에 절식절수법에 의한 강제환우를 실시함이 경영상 유리하다.

6. 방한시설준비

9월말로 접어들게 되면 야간의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고 고지대에서는 첫 서리가 내릴 정도로 온도가 저하하기 때문에 겨울을 위한 방한 시설의 첫 준

비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육추사와 개방성계사에는 비닐칸막이를 설치하고 겨울준비를 위한 난로 연통등을 구입 정비해둬야 한다. 큰 양계장에서는 월동준비를 위한 계획서를 미리 수립하고 겨울동안 구하기 힘든 연한 왕겨등을 사전계획하여 구입하고 왕겨등은 9월 말경 벌써 천정이나 벽에 주입하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9,10월의 태풍과 겨울동안의 서풍으로부터 계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사주위의 방풍시설도 동시에 계획해야 한다.

7. 약품 투여 및 예방접종

주야간 온도의 급변과 환절기의 닭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항상제를 투여하고 (과잉투여는 금물) 기생충 구충 및 뉴캐슬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여름동안 연변, 채식량 부족으로 인하여 피로해진 닭이 9월과 같은 호조건하에서 생활하게 되던 생산의욕이 왕성하게 되고 영양분도 많이 요구하게 되므로 비타민 미네랄등의 영양제 공급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9월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생활의 체적계절이므로 최대한의 생산효과를 얻기 위하여 닭 건강관리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